



##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종단 조사 설계 연구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Designing a Longitudinal Survey for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 A Case Study

---

저자 (Authors)	이병호, 손웅비 Lee, Byungho, Son, Woongbee
출처 (Source)	<a href="#">GRI 연구논총 19(3)</a> , 2017.12, 1-23(23 pages) <a href="#">GRI REVIEW 19(3)</a> , 2017.12, 1-23(23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경기연구원</a> Gyeonggi Research Institut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365445">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365445</a>
APA Style	이병호, 손웅비 (2017).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종단 조사 설계 연구. GRI 연구논총, 19(3), 1-23

KAIST  
110.76.108.\*\*\*  
2021/05/13 (Accessed)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종단 조사 설계 연구: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병 호\*\* / 손 웅 비\*\*\*

행복한 삶은 고도성장 이후 찾아온 저성장 시대의 핵심적인 화두이다. 근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 역시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맞춰지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지역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대상인 주민의 삶의 질은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삶의 질 계측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조사를 통해 구현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경기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2016년 여름 경기도에 거주하는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의 설계과정을 요약해 제시한다. 해당 조사를 기획함에 있어 우선 기존의 각종 사회조사와 패널조사의 장단점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반복 횡단면 조사와 종단 조사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회조사와 주로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종단 조사는 별도로 진행되고 발전되어왔는데,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는 표본설계, 표집, 조사영역 설정, 문항구성 등의 과정에서 두 가지 조사형태를 아우르는 새로운 대안적 조사를 지향하였다. 나아가 향후 주기적인 패널조사를 통해 경기도민 삶의 질의 동태적 변화까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객관인 주민의 관점에 기반을 둔 근거중심 정책연구를 도모한다.

주제어 \_ 삶의 질, 가구조사, 종단연구, 조사연구, 경기도

\* 이 글의 일부는 2016년 경기연구원 보고서 「경기도민 삶의 질 동태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제1저자)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교신저자)

# Designing a Longitudinal Survey for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A Case Study

Lee, Byungho\* / Son, Woongbee\*\*

---

As of today, enjoying a happy life is a central concern for all of us including Koreans. It is, therefore, a remarkable recent trend in South Korea that the main emphasis of governmental policies implemented by both central and local levels, which used to be achieving economic growth and increasing GDP, is to offer better lives. So the ultimate goal of local governments is to substantial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ir residents. For achieving this objective, it is undoubtedly necessary not just to define the notion of quality of life but also to measure it properly.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discuss an issue of measuring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and to illustrate a concrete procedure of actualization through conducting a survey. As a case, it mainly focuses on the Quality of Life Survey for the residents of Gyeonggi Province, directed by Gyeonggi Research Institute. The first wave was conducted in 2016 in which its sample size was 20,000 households, some of which agreed to be a panel household that will be repeatedly interviewed later. It was composed of eight categories constituting a person's quality of life, namely family, housing, household economy, employment, transportation, environment, community, and well-being. This survey attempts to lay the foundation for developing evidence-based policies through constructing individual-level panel dataset. It would also contribute to the study of survey research design by suggesting an integrative model accommodating both a cross-sectional social survey and a longitudinal panel survey.

**Keywords** \_ Quality of life, Household survey, Longitudinal study, Survey research, Gyeonggi Province

---

\* Research Fellow. Gyeonggi Research Institute(First Author)

\*\* Research Fellow. Gyeonggi Research Institute(Corresponding Author)

## I. 서론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기후변화, 물 부족, 대기오염 등을 포함한 전 지구적 환경위기, 고착화되는 저성장 그리고 점점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 등의 이슈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위험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식주 해결, 인간의 권리인 행복 추구, 전반적인 삶의 만족 그리고 이의 토대가 되는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관심을 두루 반영하여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은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다양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Veenhoven, 2000; 이재열 외, 2015; OECD, 2017).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은 꾸준히 변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후 재건과 고도성장의 분위기 속에서 물질적 기반 구축과 확산은 인류의 당면과제였다. 이런 이유로 각 국가들은 국가 총생산량의 증가, 산업화, 무역 등에 집중했다. 특히 신생독립국과 저개발 국가들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여길 정도였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어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인 수준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제 삶의 질은 국내총생산(GDP)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지표나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물질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과 행복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Biderman, 1970; 강성진, 2010). 따라서 정부의 정책방향도 종래 GDP를 끌어올리는 경제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다양한 사회상을 포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난 2008년 2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구성한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경제적 성취와 사회적 발전 측정에 관한 보고서’는 바로 이런 고민을 담고 있다(Stiglitz, Sen & Fitoussi, 2009). 이 보고서는 사회 경제적 발전의 측정에 있어 기존의 GDP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적 부문, 삶의 질,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모두를 포괄하는 새로운 지표체계를 제안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 출범 50주년을 맞아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을 기조로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삶의 질 수준을 추적하기 위한 광범위한 비교통계 작성에 돌입했다(한준 외, 2011).

우리 사회의 의식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통해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지만, 초저출산과 급속한 인구고령화 추세, 사회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 부의 불평등과 대물림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동시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위기에 대처할 방안으로 기존 성장위주의 정책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살피는 정책적 노력은 정부 당국과 학계를 중심으로 가시화되는 추세이다.

최근 몇 년간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은 ‘국민 삶의 질 지표’(Korean Quality of Life)를 개발해왔으며 현재 주요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이희길·심수진, 2009, 2010). 아울러 통계청과 한국 삶의 질 학회는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를 연구해왔으며 국내외의 공론화를 위해 2017년 3월에는 ‘GDP plus Beyond’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살펴보면,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감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단순한 지표와 지수 개발에 머물지 않고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 삶의 질에 두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천명하는 도시재생(urban renewal)의 목적은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의 재창조’이며,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선언한 재생의 목적에는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명기되어 있다. 이처럼 근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주요 정책 목표로 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삶의 질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국가 혹은 지역 단위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비교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그 측정방법 역시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반면 삶의 질을 측정하고 그에 대한 지표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은 여전히 초보적인 상태에 있다. 특히 전국 혹은 광역 차원에 비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정확히 측정한 연구나 조사는 미흡한 실정이다. 경기도 지역으로 논의를 한정하면, 그간 경기도민의 삶의 질 측정을 시도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꾸준히 나왔으나 대체로 가구조사(household survey) 자료가 아닌 행정통계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김제국 외, 2000; 조성호 외, 2008; 이정태·권영주, 2010). 이는 정책의 수요자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비교하기 위한 대규모 가구조사가 미비했거나 시행되었더라도 원자료(raw data)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 기인한다. 그리고 개인 및 가구 단위 실태조사가 연구자에게 가용한 경우에도 고용, 주거, 통근, 건강과 같은 특정 영역에 특화되어 있어 주민 삶의 질 수준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기연구원은 2015년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경기도 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경기도민을 위한 근거기반 정책형성의 기초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관측을 통해 주민 삶의 질 수준의 동태까지 파악하는 가구 패널조사(household panel survey)를 기획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 하반기에 이르러 대규모 가구조사를 위한 예산 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설계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의 설계과정과 조사가 가진 의의를 설명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할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조사의 배경, 주요 선행 연구, 표집 및 설문지 설계, 조사의 함의 등을 차례로 살핀다.

## II. 조사의 배경 및 선행연구

###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대한민국 인구의 1/4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공간적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혼재하며 신도시와 구도심이 병존하는 상황이기에 삶의 양식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경기도민이 처한 실태와 이들이 가진 인식과 삶의 만족도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복잡다기한 행정수요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의 공간적 범위인 경기도는 2017년 10월 기준 1,300여 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규모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이다. 경기도는 도합 31개 기초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 100만 명이 넘는 3개 광역시급 대도시를 포함하고 있다. 중앙과 경기도에서 공표하는 각종 행정통계를 보면, 경기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인구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과 소득 수준을 보이며, 양질의 교육기관과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여느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역시 주민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더불어 행정통계와 같은 거시자료에만 기대지 않고, 도민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1997년부터 실시하는 「경기도 사회조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상과 정책 욕구, 의식의 흐름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그간 조사 원자료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행정통계로 추적하기 힘든 실제 주민들의 인식과 삶의 만족도 수준을 측정해 지역사회 삶의 질 수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지역 간 차원에서 비교해봄으로써 더 나은 삶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생긴다. 그리고 도민 삶의 질을 중심으로 도정의 기본방향과 정책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지표 구축도 필요하다. 나아가 중앙의 관점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는 지역 차원의 근거중심(evidence-based) 정책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비록 중앙의 대표적인 선행 조사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지역의 주된 관심사와 주민의 정책수요를 간과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는 크게 보아 다음 네 가지 목적을 가진다. 먼저 가구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근거중심 정책연구의 토대를 만들고자 했다. 다음으로 도민의 삶의 질 수준 동태(dynamics)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간에 따른 생활상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

하는 중단 조사를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 나아가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행정체계를 탈피해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주민의 관점을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상향식(bottom up) 정책 개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및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고려한다. 국내외 주요 조사들의 대표 문항과 비교 가능한 문항을 조사에 반영해 경기도민 삶의 질 수준을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세계 시민과 비교해 조망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 2. 선행연구

### 1) 삶의 질의 개념

이 글의 핵심이라 할 삶의 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인 행복(happiness), 만족(satisfaction), 웰빙(well-being)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삶의 질을 조사를 통해 측정하는데 있어 필연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는 이것이 간명하게 단정적인 방식으로 정의내릴 수 없는 개념이라는데 있다.

행복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 논쟁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행복을 감정의 상태(a state of feeling)와 활동의 종류(a kind of activity)로 구분해 논의했으며, 그가 강조한 ‘유대모니아’(eudaimonia)는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 소명을 완수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을 뜻하는데 영어 happiness는 이를 번역한 것이다. 한편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한 분파인 쾌락주의(Hedonism)는 행복한 삶을 쾌락을 추구하는 삶과 일치시키면서 욕구 충족에 따른 자기중심적인 쾌락에서 행복을 찾는 ‘헤도니아’(hedonia)를 강조하였다(Ryan & Deci, 2001; Helliwell, 2006; Deci & Ryan, 2008; 이정호, 2011;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5).

행복과 만족 그리고 웰빙은 삶의 질을 형성하는 개념이며 종종 호환되는 가치이지만 각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행복과 만족은 주로 개인의 맥락과 관점에 입각해 대상을 움직인다. 반면 웰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대로 개인이 자아실현을 위해 환경과 공동체를 연결하여 의미 있는 삶을 찾아 가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세 가지 개념을 하나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삶의 질의 핵심 구성요소라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족·사회·경제·심리적인 만족을 통해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사회 속에서 그 가치를 발현한다는 조작적 정의는 가능하다.

최근에는 행복에 대한 측정개념으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SWB) 혹은 삶에 대한 만족도(life satisfaction)라는 개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Diener et al., 1999; Diener, 2000; 이병호, 2014). 기본적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잘 사는 것(well-being)이 삶의 질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다. 정책적인 견지에서 볼 때, 시민의 행복은 다양한 물질적, 객관적 조건에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가치에 따른 주관적 판단이기에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과 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지 지향적 정책 모색이 더욱 중요해졌다(임근식, 2012).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회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간과되어온 주관적 지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Veenhoven, 2002).

지금까지 행복 및 삶에 대한 만족도 또는 이 둘을 아우르는 개념인 주관적 웰빙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 간의 비교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왔다(Myers & Diener, 1995). 그 가운데에서도 국가 간 부(wealth), 정부 및 제도에 대한 신뢰, 사회의 정의와 부패 그리고 안전망, 대인관계에서의 호혜성과 신뢰 수준 등이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나왔다(Easterlin, 1974; Radcliff, 2001; Helliwell & Putnam, 2004; Tavits, 2008). 이는 연구의 주제와 분석의 수준에 따라 행복을 설명하는 변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 단위 분석인 경우 국민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신뢰할만한 정부가 적절한 복지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웃과의 믿을만한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의 여부에 의해 생길 수 있다. 반면 개인을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로 설정한다면 개인의 소득, 학력, 성별, 연령, 종교, 결혼지위 등의 변수가 행복이나 삶의 만족을 결정짓는 역할을 할 수 있다(Diener et al., 1999).

행복과 삶의 만족을 연구해 온 여러 갈래의 움직임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금전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왔다. 일찍이 Simon Kuznets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당시의 국가경제를 진단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국가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 개념을 내놓는데도 기여했다(Van den Bergh, 2009). 하지만 GNP를 경제적 혹은 사회적 웰빙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거시적 경제지표만으로 국민들의 총체적인 삶의 수준을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Kuznets의 제자 Eastrelin(1973, 1974)은 “돈이 과연 행복을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소득의 증가는 사회의 행복을 제고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개인의 행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1) 국가별 빈부격차로 인한 주관적 삶의 질의 차이는 작고 일관되지 않으며, 2) 미국인의 실질소득이 전후 25년 간 두 배가량 증가했음에도 주관적 삶의 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3) 특정 국가의 높은 소득은 국민의 평균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음을 역설하였다.

이른바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로 통상적으로 불리는 그의 연구 결과는 삶의 질을 둘러싼 많은 연구에서 널리 회자되어 왔다(Easterlin, 1995, 2003; Easterlin et al., 2010; 이내찬, 2012;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7). 이를테면 부탄(Bhutan) 왕국은 세계에서 빈국 중의 하나이지만 행복과 삶의 만족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점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어왔다. 하지만 소득과 행복의 상관성에 대한 이런 견해는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일련의 연구들은 삶의 질에 대



한 소득의 유의미한 효과를 경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Deaton, 2008; Di Tella & MacCulloch, 2008; Kahneman & Deaton, 2010).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세계 학계에서는 ‘이스털린 역설에 대한 역설’이라 불릴만한 논쟁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소득과 자산 이외에도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야말로 삶의 질을 설명하는 요체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 20세기 후반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는 부의 축적과 인간다운 삶을, 소위 제3세계에서는 배고픔과 주택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삶의 질이라는 시각이 존재했다(UNDP, 2016). 이는 당대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며, 인간의 삶을 조건지우는 하부구조인 기반시설, 주거, 식생활, 보건의료, 고용 등이 삶의 질의 주된 구성요소라는 것을 재인식 시켜준다. 결국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행복과 만족, 웰빙 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수단으로서의 주거, 사회기반시설, 환경, 치안 등의 속성도 병립해야 함을 뜻한다.

기존 연구를 검토하면서 보았듯이, 삶의 질은 개인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물리적 환경과 물질적 조건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개인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과 감정적인 만족과 행복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조사들은 실제 어떻게 수행되어 왔는지 아래에서 상론한다.

## 2) 삶의 질 측정

삶의 질 조사에 관한 선행연구는 사회의 발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적 지표로서의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 연구에 그 기원을 둔다. 이는 전반적인 사회상을 측정하는 동시에,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수준까지 평가하는 목적을 가진다. 국제적 차원에서 사회지표 개발은 주로 국제연합(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왔다(이희길·심수진, 2010).

먼저 UN의 사례를 살펴보면, 1963년에 발족한 기구 산하의 ‘국제연합 사회발전 연구소’(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UNRISD)는 설립 초창기부터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사회지표 체계를 개발해왔으며, 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측정하는 73개 지표 중 16개 핵심지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UN 차원에서 지표화가 가능한 인구, 건강, 주택, 교육, 고용 등의 통계자료를 망라해 회원국 사이의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한 사회지표를 개발해왔다.

아울러 2012년부터 UN이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는 세계 150여개 나라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현재까지 5차례 발표된 「세계행복보고서」는 개인 행복의 사회적 기반을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주민 행복을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여러 국가들의 정책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동인으로 작용하였다(변미리, 2014). 나아가 UN의 「세계행복보고서」는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소득,

건강, 자유, 관용, 돌봄, 정직,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꼽고 있는데, 이런 기준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는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핀란드 등이 선정되었다. 선진국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와 대인관계이며 그 중에서도 정신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빈부격차나 소득불평등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개발도상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Helliwell, Layard & Sachs, 2017).

다음으로 OECD는 자체적인 사회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1973년 「OECD 회원국 대부분에 공통적인 사회적 관심 목록」(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OECD Countries)이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여기서는 주요한 사회적 관심분야를 8개 영역 즉 건강, 학습을 통한 자기개발, 고용과 일자리의 질, 시간사용과 여가, 가계경제, 물리적 환경, 안전과 행정, 사회적 기회와 참여로 구분해 설정하였다(OECD, 1973). 이 같은 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사회발전 상태를 설명하는 것에 맞춰져 있고, UN의 사회지표에 비해 주관적 지표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이번 세기 들어 OECD는 2002년부터 매 2년 주기로 34개 회원국과 비회원국이지만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의 자료를 종합해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를 발표하고 있다(OECD, 2016).

OECD는 사회지표 외에도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최근의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해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를 개발해 2011년부터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웰빙 수준을 측정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더 나은 삶을 도모할 목적을 가진 BLI는 11개 영역 그리고 이와 관련한 24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주거, 소득, 직업과 같이 삶의 물질적 토대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거버넌스, 건강, 안전, 공동체, 삶의 만족, 일가정균형과 같이 개인별 주관적인 행복과 삶의 질 수준의 차이를 만드는 영역까지 아우른다(이내찬, 2012; 정해식·김성아, 2015; OECD, 2017).

언론을 통해 익히 잘 알려진 대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38개국을 대상으로 한 OECD의 BLI 결과에서 공동체 영역 구체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질적인 수준은 최하위에 머무르며, 삶의 만족도 영역도 하위권에 그치는 실정이다. 삶의 안정성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이 OECD 국가 차원에서 행복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도 한국은 최하위 수준에 속한다(이내찬, 2012). 아울러 UN의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순위는 155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55위에 그치는데, 이는 OECD 대부분 국가에 비해 낮은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대만(33위), 일본(51위)에 비해서도 뒤처지는 결과이다(Helliwell, Layard & Sachs, 2017).<sup>1)</sup>

1) 한편 「세계행복보고서」는 국가별 행복수준의 시계열적 변화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2008년 이후 종전에 비해 보다 행복한 쪽으로 변화하였다. 이런 추세는 상당수 OECD 회원국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그 이전에 비해 행복지수가 하락하는 추세와 대비된다. Helliwell, Layard & Sachs(2017: 25-29) 참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외형적인 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이런 현실은 우리의 삶의 질이란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저성장 시대 삶의 질과 행복이 한국사회의 화두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이를 지표화하는 시도는 점점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특히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삶의 질 조사를 통해 시의적절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수집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나날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다음 절에서는 그 사례인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설계과정을 간략히 설명한다.

### Ⅲ. 조사의 설계

#### 1. 지역 단위 패널조사

경기연구원의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가 가진 여러 특징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은 종단연구를 위한 패널조사(panel survey) 성격을 갖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종단연구는 개인, 가구, 조직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를 뜻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패널조사는 특정한 횡단 시점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이를 매년 혹은 격년 주기로 관찰하고 조사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이삼식 외, 2006). 한편 종단 조사와 횡단 조사의 본질적인 차이는 시계열적인 반복측정 여부인데, 이런 특성 때문에 종단 조사는 횡단면 조사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표본이탈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패널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종단 조사는 사회조사에서 흔히 쓰이는 반복 횡단면 조사(repeated cross-sectional survey) 방식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아울러 종단 조사는 동일한 개체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질문해야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조사 차수별 조사표 설문문항의 내용과 응답 척도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종단 조사의 속성 때문에 최초 조사를 설계하는 작업은 통상적인 횡단 조사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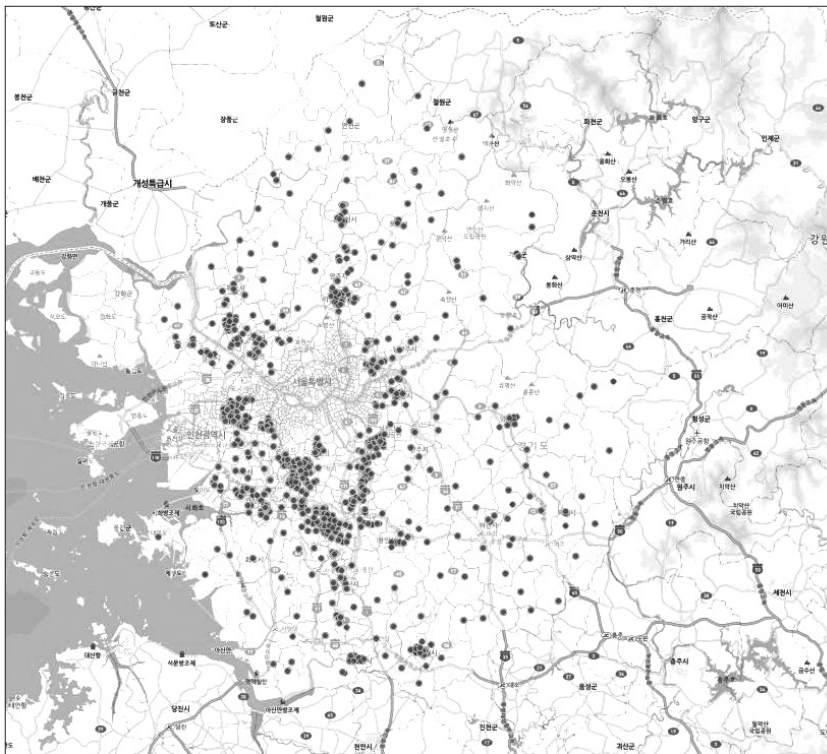
그렇다면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패널조사로 기획한 목적은 무엇인가? 패널조사의 장점은 횡단면 사회조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 현상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패널조사는 같은 표본에 대한 반복 추적을 통해 삶의 만족도, 심리적 감정상태, 주관적 건강인식, 수면시간, 학업성취도 등과 같은 변수가 변화하게 된 원인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causal explanation)이 가능하다. 특정 현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원인진단을 통해 정책적 해결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현재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자체적인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구체적인 정책수립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연구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역시 이런 패널조사의 장점을 살려 지역주민의 삶의 질 동태를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연구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 2. 표본설계

지난 2016년 여름에 실시한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는 경기도민 가운데 만 19세 이상 성인을 모집단으로 하며, 553개 집계구를 표본추출의 단위로 삼았다.<sup>2)</sup> 〈그림 1〉은 조사를 위해 표집된 집계구의 공간적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1〉 조사에 사용된 집계구의 공간적 분포<sup>3)</sup>



그림에도 보듯이, 표집에 이용된 집계구는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집계구는 기초단위구를 몇 개씩 묶어 일정한 인구규모(약 500명)를 유지하면서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비슷한 사람

2) 조사 모집단의 가구원수별, 주택유형별 가구 분포, 집계구에 대한 지역정보와 집계구별 표본할당은 이병호 외(2016: 203-219) 참고.

3) 집계구 분포에 대한 지도를 제작한 경기연구원 김가연 연구원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들이 모이도록 획정한 경계이며, GIS 서비스의 단위로 활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기초단위구는 하천, 도로 등 준(準)항구적인 지형지물을 기초로 경계를 설정하고 인구, 가구, 주택, 사업체 등 각종 센서스 통계를 추출해 GIS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는 경계를 뜻한다. 기초단위구의 장점은 변동이 크지 않다는 점인데, 이 때문에 일상생활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이를 통해 미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적합하다는 장점도 가진다.

아울러 표본규모와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내국인 일반 가구로 한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따라서 기준 시점 당시 군복무, 장기 해외출장 혹은 유학중인 경우, 교정 시설 수감자와 같이 특수 사회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인은 표집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가구조사라는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로부터 도출된 경기도의 전체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며 이를 기반으로 31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일정 비율을 추출했다. 확률적 표본추출 방법으로는 다단계 층화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적용했다. 이 방법은 모집단을 먼저 일련의 하위집단으로 층화시키고, 각 하위집단에서 적절량의 표본을 표집하는 방식을 따른다.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연구진은 경기도 지역의 총 409만여 가구 가운데 2만 가구 표본을 조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포함했다. 표집에 있어 우선 모집단을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별로 층화시킨 다음 계통적으로 표본을 추출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별 표본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지역별 최소 표본을 600가구씩 할당했다. 여기에 추가로 인구규모가 큰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등과 같은 지역에 대해 20% 가량 추가적인 표집을 실시했다.

이상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본할당 방식을 균등할당과 비례할당으로 구분해, 3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600가구씩 균등 할당을 실시해 18,600가구를 추출하고, 나머지 1,400가구는 인구규모에 비례해 추가로 할당했다. 다음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 할당된 가구를 다시 행정동의 수에 비례해 재할당을 시행하고, 각 행정동에 할당된 가구는 주택유형의 분포에 따라 다시 한 번 재할당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주택유형별 표집은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유형을 나누어 할당했다.<sup>4)</sup>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행정구가 있는 지역은 행정구별 표본을 할당하기 위해 각 행정구별로 가구를 1인, 2인, 3인, 4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는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자료를 활용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1인 가구 표집이다. 일반적으로 1인 가구는 가구방문 조사에 응답할 확률이 낮는데 이들이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에서 과소표집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1인 가구 비율을 최소 10% 이상 다

4) 참고로 경기도의 주택유형별 가구분포는 아파트가 57.4%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단독주택은 27.6%,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11.5%, 기타는 3.5%로 나타났다.



시 말해 2,000가구 이상 조사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는 그 설계과정에서 표집된 표본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표본 대체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추출된 집계구가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유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지역의 특성이 변경된 경우(가령 주택에서 상가지역으로 개발)에는 표본추출 당시 분류 지표상으로 가장 유사한 인근 지역의 집계구로 대체했다. 집계구내 표본 가구와의 접촉을 위한 방문 횟수는 최대 3회로 정했으며, 요일 및 시간대를 달리해 방문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3회 방문을 했음에도 조사 대상자와의 면접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유를 기록하고 동일한 주택유형 가구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 IV.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문항개발<sup>5)</sup>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의 연구진은 실제 조사에 사용할 문항과 척도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숙고하였다. 우선 기존 국내외 조사연구의 성과를 폭넓게 검토하고 여기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영역을 구분하고 영역별 문항의 내용과 순서를 구성해나갔다. 구체적으로 말해, 삶의 질 측정과 관련한 국내외 중단 패널조사 및 횡단 사회조사 그리고 앞에서 논의한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동시에 지역 실정을 반영하는 자체 설문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 하에서 응답자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획득하고 설문조사가 태생적으로 가지는 각종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조사방법론 연구를 참고했다(Groves, 1989; Rasinski, 1989; Fowler, 1995; Tourangeau, Rips & Rasinski, 2000; 이성용, 2003).

이런 과정을 거쳐 조사표의 기본적인 틀을 완성한 다음 연구진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전업주부,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하여 응답하기 곤란하거나 표현이 모호한 문항을 수정하였다. 사전조사 결과는 영역별 문항배열 순서와 응답척도 조정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 본조사에 앞서 가구방문조사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예비조사(pilot survey)를 시행하였다.

조사의 문항은 기본적으로 코딩의 편의성을 감안해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했다. 범주형 문항의 척도는 예/아니오의 이항 척도(binary scale) 또는 등간척도인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했다. 한국

5) 영역별 문항개발 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병호 외(2016) 제3장을 참고.

의 사회조사는 일반적으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한 경우가 많지만,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조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조사인 General Social Survey를 참고해 대부분의 문항을 ‘보통이다’를 제거한 4점 척도로 구성했다(Davis, Smith & Marsden, 2001). 왜냐하면 (매우) 불만족/만족,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식으로 4점 척도를 구성하면 사안에 대해 보다 분명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질문 가령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질문은 기존의 대표적인 조사들과의 비교를 위해 5점 척도를 적용했다. 한편 상당수 문항 예컨대 월 평균 가구 소득, 월 평균 교통비, 통근시간 등의 질문은 기존 패널조사와 유사하게 연속형 변수로 설계했다.

일반적인 패널조사는 응답자의 현재 상황이나 지난 한 주 간, 지난 한 달 간 상태와 같이 어느 정도 정확히 기억해낼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제1차 조사인 관 계로 자녀 출생이력,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거주기간,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여부 등과 같은 회고적 문항(retrospective questionnaire)을 불가피하게 다수 포함하였다. 다음 조사에서는 이런 회고적 문항을 2016년 제1차 조사 이후 일어난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요컨대 조사의 문항개발은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 평가 기준에 의거 응답의 편의성(convenience), 내용의 적절성(relevance), 다른 조사와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란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아래 <표 1>에 제시한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의 주요 영역과 영역별 세부 내용을 논의하도록 한다.

우선 조사표 처음에 등장하는 가구정보는 가구를 방문한 조사원이 기입하며, 마지막의 기본사항은 응답자 개인의 교육수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배치했다. 실제 경기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관련한 8개 핵심 영역은 가족, 주거, 가계, 고용, 교통, 환경, 사회통합, 웰빙 순으로 구성했다. 이러한 배열순서는 응답자가 느낄 조사에 대한 난이도, 피로도, 심리상태 등을 감안한 것이며, 사전조사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크게 보아 앞의 3개 영역 즉 가족, 주거, 가계는 가구의 상황을, 뒤의 5개 영역은 개인의 생활실태와 의식을 묻고 있다.

조사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가족 영역은 향후 결혼의향, 출산 연령에 대한 생각, 가정생활, 자녀 출생이력, 향후 출산의향, 노후대책에 대한 견해 등 총 11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특히 미혼자에게는 결혼에 대한 의향과 가치관을, 유배우자에게는 자녀 출생이력과 출산계획을 물어서 비혼 추세 의 원인과 초저출산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최근 한국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1인 가구 증가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분가 사유에 대한 설문도 포함했다. 더불어 생애 주기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레 대두되는 노후 생활비 문제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했다.



〈표 1〉 조사의 영역과 설문 구성<sup>6)</sup>

조사영역	문항 수	설문항목
A. 가족	11	결혼에 대한 생각, 적정 결혼 연령, 자녀의 필요성, 적정 자녀수, 이상적인 첫 아이 출산 연령, 막내 출산가능 연령, 향후 결혼의향, 자녀 출생이력, 향후 자녀 계획, 자녀 계획 인원, 자녀 미계획 이유, 현 배우자와의 혼인시점, 미취학자녀 돌봄 주제, 1인 가구 비동거 사유,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B. 주거	8	현 주거지 거주기간, 현 주거지 이사 이유, 현 주거지 점유 형태 및 자산가치, 추가 보유 주택 여부, 추가 보유 주택의 위치와 유형, 이사의향, 이사 계획 시기, 이사 계획 이유, 소득 증가 시 이사의향, 선호하는 주택입지, 정부 주거지원정책 필요도,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주거지역 편의시설 만족도, 주요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C. 가계	9	항목별 소득 발생 여부, 가구 소득·지출·저축액,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 자녀 월평균 교육비, 경제적 어려움, 생활비 부족 경험, 부족한 생활비 마련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미선정 이유, 현재 가계 관련 고민, 가계부채 여부, 부채발생 이유, 부채규모 변화 정도, 부채규모 변화 전망
D. 고용	13	지난 주 근로 여부, 일시휴무 여부, 일시휴무 이유, 종사상 지위, 직업, 근로시간, 일자리 만족도, 일한 경력, 4대 보험 가입 여부, 임금근로자 일자리 형태, 부업 여부, 부업 이유, 구직 의사, 올해 구직 경험, 구직 방법, 구직 시 애로사항, 희망 일자리 형태, 희망 근무형태, 시간 선택제 희망 이유
E. 교통	15	통근/통학 여부, 통근/통학 지역, 통근/통학 교통수단, 통근/통학 교통비용, 통근/통학 소요시간, 이사/이직 고려 여부,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보유 여부, 자가용 보유 여부, 지역 내 자가용 주차 환경, 지역 교통환경, 지역 교통안전, 거주지의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견해
F. 환경	4	평소 환경보호 실천 여부, 환경보호실천 종류, 환경문제 관련 주장에 대한 의견, 생활환경 개선 필요 영역, 거주지 재난관리 수준
G. 사회통합	7	지역에 대한 소속감, 지역 내 이웃들과의 관계, 상황별 이웃과의 교류 경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참여 의향, 참여 의향이 있는 봉사활동 유형, 모임 또는 단체 참여 경험, 투표 참여 여부, 경기도가 잘하고 있는 분야
H. 웰빙	12	삶의 만족도, 이상적인 삶의 괴리, 감정적 기분, 주관적 건강상태, 하루 평균 수면시간, 수면시간 및 수면의 질에 관한 인식, 여가시간에 대한 견해, 여가시간 부족의 이유, 여가 동반자, 반려동물
I. 기본사항	1	학력, 전공계열, 대학교 소재지

주거 영역은 주택 점유형태와 자산가치, 향후 이주의향, 근린환경 등에 대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경기도민의 객관적인 주거실태뿐만 아니라 이들이 느끼는 주거에 대한 인식까지 측정하였다. 단순히 어떤 집에서 얼마나 살아 왔는지에 그치지 않고, 시장, 병원, 공공기관, 도서관, 체육관, 공원 등 거주지 인근의 편의시설 이용 행태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성과 만족도까지 질문하여 경기도민이 느끼는 주거환경의 편의성을 측정하고자 했다.

6) 표에 제시한 영역별 문항 수는 대체로 응답자에게 공통적으로 질문되는 문항의 개수를 뜻하며, 사안에 따라 일부 설문은 몇 개의 추가적인 보조 문항을 포함한다.

가계 영역에는 가정경제와 관련하여 소득 수준, 소비 수준, 가계부채 상황이라는 3개 분야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배치했다.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수준은 경제적인 자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계의 경제적 수준은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중요한 요체가 된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최근 세계 학계에서는 기존의 ‘이스털린 역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소득 증가의 행복에 대한 효과를 역설하는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이런 추세를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에 담아내기 위해 이 영역은 가계 부분에 특화된 국내외 조사 가령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는 간명하면서도 기존 사회조사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했다.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수 문항은 사회조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범주형 척도 대신 패널조사에서 사용하는 연속형 척도를 적용했다.

고용 영역에서는 조사자의 근로 여부, 근로 형태, 일자리에 대한 생각, 부업 여부, 구직의향과 활동, 희망하는 일자리 등을 13개 문항을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일자리를 통한 경제활동은 도민들의 가계를 꾸리게 한다. 직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개인과 가정은 불안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배제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일터에서 창출된 수입은 삶의 질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근간이다. 이 영역의 설문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등을 참고해 작성되었다.

교통 영역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 교통과 관련한 사안은 경기도민들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의 핵심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통근 혹은 통학을 위한 대중교통이나 자가 차량 이용은 그 시간과 비용에 따라 만족도가 천차만별이다. 아울러 교통만족도는 흔히 지역의 주거만족도와 상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는 통근 또는 통학 실태, 각종 교통수단 보유 상황, 지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 교통안전 및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인식 등 총 15개의 질문으로 주민이 처한 상황과 인식을 확인하고자 시도했다.

환경 영역은 재난과 안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환경실천, 거주 지역 생활환경, 재난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등에 걸쳐 4개의 질문을 하였다. 이번 설문에서 환경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편이었는데, 향후 조사에서는 대기오염 특히 초미세먼지 문제,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불거진 먹거리 안전, 탈원전 정책과 원자력 안전, 지진 대책 등과 같이 사회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해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 영역은 공동체와 시민참여를 함께 물었다. 한 개인의 삶의 질은 대체로 자신이 교류하는 공동체와 지역사회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집단은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소규모 공동체부터 직장동료, 이웃, 지역사회와 같은 공동체를 포함한다. 아울러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종교단체, 마을협동조합,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결사체를 뜻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공동체 활

동과 참여를 통해 상호 신뢰와 유대감이 높아진다. 지역사회에 얼마나 잘 융화되고 통합되었는지 혹은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는지에 따라 삶의 질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7개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통합 영역은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공동체(지역에 대한 소속감, 지역주민과의 관계, 이웃과의 교류)와 사회참여(지역사회 봉사활동, 각종 모임 및 단체 활동, 투표 참여)라는 2개 영역에 초점을 맞춰 경기도민의 사회통합 실태를 확인하였다.

웰빙 영역에서는 응답자의 주관적 웰빙 상태를 다각도로 측정하고자 했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나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에서도 주관적 웰빙은 중요한 의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반영해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역시 웰빙을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했다. 여기서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 행복,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시간, 수면의 질, 여가시간, 여가 동반자, 반려동물 등에 대한 문항을 통해 삶의 질의 중요한 부분인 웰빙에 대해 측정하고자 했다.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웰빙 영역은 연구진의 자체 발굴 문항과 다른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와 같은 국내외 우수 조사들을 참조해 만든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8개 영역을 통해 그간 막연하게 행정통계로만 유추했던 경기도민 삶의 질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나아가 향후 객관적, 주관적 지표로 구현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가진 의의는 상당하다. 문항을 구상하고 개발하는 단계부터 실제 조사를 위해 이를 선별하고 조사표를 확정하는 과정까지 국내외의 기존 조사 자료와 연구경향을 반영하였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신규 문항을 발굴하여 개인 및 가구 수준의 미시적 동태 분석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추후 주기적인 패널조사를 통해 종단자료를 구축해 나간다면 인과적 효과(causal effect) 분석이 가능한 종단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 V. 결론

경기연구원의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는 경기도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 몇 가지 의의를 가진다. 먼저 해당 조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상향식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2만 가구 대상 대규모 횡단면 조사를 통해 패널가구를 확보하고 향후 이들에 대한 추적 연구가 가능한 종단연구라는 점이다. 이번 조사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양식과 의식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국내 최초 지역 단위의 종단 조사로 설계되었다. 삶의 질을 주제로 한 지역 단위 최초의 종단 조사이자 대규모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종단연구를 위한 패널구축을 위해 조사 기간 동안 응답자를 대상으로 패널

동의 여부를 물었으며 2016년 제1차 조사 결과 전체 표본 20,000가구 중 약 36%인 7,216 가구가 차후 패널조사에 동의했다.

한편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는 학술적으로도 그 의미를 가진다. 먼저 지역연구원 최초로 삶의 질 실태에 대한 대규모 종단자료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근거중심 정책연구의 가능성을 열었다. 다음으로 지역의 연구기관, 대학교, 행정기관 등과 연계해 조사 자료 공유를 통한 협업연구 기반 확산으로 지식네트워크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반연구자와 학문후속세대에게 경기도민 삶의 질 동태에 대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 2017년 8월에 열린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데이터 활용 학술대회」에 40편에 달하는 논문이 접수되었다. 조사 결과를 담은 경기연구원 차원의 출판물에 대해서도 각계에서 관심을 보였는데, 2017년 한 해 동안 조사 분석결과 관련 500건 이상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는 여전히 몇 가지 한계점을 드러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먼저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 질문으로 삶의 질을 측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비물질적 조건인 행복, 삶의 만족도, 사회의 질 등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문항 설계가 아닌 종합 연구원 차원의 삶의 질 관련 조사가 가진 한계이다. 일반 사회조사의 성격을 지닌 삶의 질 조사 연구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주관적 지표 구축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가족, 고용, 주거, 가계, 복지, 교통, 교육, 사회통합, 건강과 같은 특정 영역에 대한 천착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격년 단위의 조사 모듈화라던가 각 회차별로 다르게 구성한 로테이션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표본 설계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이다. 제1차 조사는 통계청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진행되었기에, 표본 설계과정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사용이 불가했다. 차선택으로 집계구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체 550여개의 행정 읍·면·동에서 각 한 구역씩 추출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조정을 통해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의 구조를 근사하게 맞추어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한계점을 극복해 왔다. 향후 주기적인 패널조사를 통해 조사의 공신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단 조사가 가진 한계이다. 이번 조사는 향후 패널조사에 대해 동의한 가구를 추적해 조사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이사, 이직, 결혼, 군입대 등의 이유로 패널에서 대거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이사를 통한 전출입이 빈번한 수도권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패널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더불어 제1차 조사에서는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표본 가구의 가구주만 조사를 했다는 한계가 있다. 가구주로부터 응답을 받았기에 가구의 전반적인 특성은 파악이 되었으나 가구원 전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향후 조사부터는 패널가구의 가구원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기에 이런 문제는 보완할 수 있다.

이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2차 조사를 기획함에 있어 제1차 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

해 기존 문항의 삭제, 수정, 재배치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구축된 데이터에 대해 세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여 변별력이 떨어지거나 이미 문항 사이의 상관관계가 충분히 삭제해도 무방한 문항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시대상을 반영하는 문항을 추가해봄직하다. 중단연구를 위한 패널조사인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는 매년 반복되는 핵심 문항과 격년 혹은 일정 기간 단위로 질문되는 비정기 문항을 병기하고 필요시 부가조사까지 실시하여 조사의 실효성과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패널조사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표본이탈 문제를 최소화하고 상향식 정책개발의 근거가 될 조사 자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패널가구에 동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세심한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이런 작업은 조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건이다.

## ■ 참고문헌 ■

- 강성진(2010),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58(1): 5-36.
- 구교준·임재영·최슬기(201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 21(2): 95-130.
- 구교준·임재영·최슬기(2017), “행복의 국가 간 비교분석: 핀란드와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6(2): 179-215.
- 김제국 외(2000),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변미리(2014),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서울연구원.
- 이경태·권영주(2010),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경기도민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7(1): 97-132.
- 이내찬(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5-40.
- 이병호(2014),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참여: 다인 가구와의 비교”, 『보건사회연구』, 34(3): 348-373.
- 이병호 외(2016), 『경기도민 삶의 질 동태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경기연구원.
- 이삼식 외(2006), 『인구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성용(2003), 『여론 조사에서 사회 조사로』, 책세상.
- 이재열 외(2015), 『한국 사회의 질: 이론에서 적용까지』, 한울출판사.
- 이정호(2011), 『행복에 이르는 지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이희길·심수진(2009), 『통계개발원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삶의 질과 사회지표 체계연구』, 통계개발원.

- 이희길·심수진(2010), “사회지표 개편 방향 탐색”, 『한국사회』, 11(1): 47-77.
- 임근식(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0(1): 47-89.
- 정해식·김성아(2015), “OECD BLI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 227: 75-88.
- 조성호 외(2008), 『경기도민의 삶의 질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한준 외(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한국사회학회.
- Biderman, Albert D.(1970), “Information, Intelligence, Enlightened Public Policy: Functions and Organization of Societal Feedback”, *Policy Sciences*, 1(2): 217-230.
- Davis, James, Tom Smith & Peter Marsden(2001), *General Social Surveys, 1972-2000: Cumulative Codebook*. Chicago: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 Deaton, Augus(2008), “Income, Health, and Well-Being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2): 53-72.
- Deci, Edward L. & Richard M. Ryan(2008), “Hedonia, Eudaimonia, and Well-Being: An Introduct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1): 1-11.
- Di Tella, Rafael & Robert MacCulloch(2008), “Gross National Happiness as an Answer to the Easterlin Paradox?”,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6(1): 22-42.
- Diener, Ed(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Diener, Ed, Eunkook M. Suh, Richard E. Lucas & Heidi L. Smith(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Easterlin, Richard A.(1973), “Does Money Buy Happiness?”, *Public Interest*, 30: 3-10.
- Easterlin, Richard A.(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dited by P. A. David & M. W. Reder, New York: Academic Press, 89-125.
- Easterlin, Richard A.(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7(1): 35-47.
- Easterlin, Richard A.(2003), “Explaining Happines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0(19): 11176-11183.
- Easterlin, Richard A., Laura A. McVey, Malgorzata Switek, Onnicha Sawangfa & Jacqueline S.



- Zweig(2010), “The Happiness-Income Paradox Revisite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52): 22463–22468.
- Fowler, Floyd J.(1995), *Improving Survey Questions: Design and Evaluation*, Thousand Oaks, CA: Sage.
- Groves, Robert M.(1989), *Survey Errors and Survey Costs*, New York: John Wiley & Sons.
- Helliwell, John F.(2006), “Well-Being, Social Capital and Public Policy: What's New?”, *Economic Journal*, 116(510): C34–C45.
- Helliwell John F. & Robert D. Putnam(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59: 1435–1446.
- Helliwell, John, Richard Layard & Jeffrey Sachs(2017), *World Happiness Report 2017*,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Kahneman, Daniel & Angus Deaton(2010),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38): 16489–16493.
- Myers, David G. & Ed Diener(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10–19.
- OECD(1973), *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OECD Countries*,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OECD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 OECD(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 Radcliff, Benjamin(2001), “Politics, Markets, and Life Satisfa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Human Happin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939–952.
- Rasinski, Kenneth A.(1989), “The Effect of Question Wording on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Public Opinion Quarterly*, 53(3), 388–394.
- Ryan, Richard M. & Edward L. Deci(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Paris: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Tavits, Margit(2008), “Representation, Corrup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12): 1607–1630.

Tourangeau, Roger, Lance J Rips & Kenneth Rasinski(2000), *The Psychology of Survey Respon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UNDP(2016),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 Human Development for Everyone*. New Y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Van den Bergh, Jeroen(2009), “The GDP Paradox”,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0(2): 117–135.

Veenhoven, Ruut(2000), “The Four Qualities of Life: Ordering Concepts and Measures of the Good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1–39.

Veenhoven, Ruut(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 33–45.

<http://qol.kostat.go.kr>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worldhappiness.report> UN 세계행복보고서.

<http://www.oecd.org/social/society-at-a-glance-19991290.htm> OECD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OECD 더 나은 삶 지수.

---

원 고 접 수 일 | 2017년 10월 20일

심 사 완 료 일 | 2017년 11월 20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7년 11월 25일

**이병호** bhlee@gri.kr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at Ann Arbor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홍콩과기대학 전임강사를 거쳐 2015년 3월부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구, 가족, 삶의 질, 정체성, 중국사회 등이다. “혼전임신 출산의 추세, 2001~2015”(2017), “다자녀 출산의 결정요인 연구”(2017),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민족정체성 변화”(2017), “노동시장 공간의 이중구조화와 불평등”(2017) 등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

**손웅비** woongbeeson@gri.kr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에서 도시 및 공공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거버넌스, 삶의 질, 정보화 시대의 행정, 정책결정과정, 지방자치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An Exploratory and Comparative Research of the Policy Reform between Two Countries”, “Relationship between Policy Making Process and Societal Changes”, “도시의 재난과 위기대응 거버넌스” 등이 있다.